

나주에 둘러싼지도 地圖



사람학교교직원연구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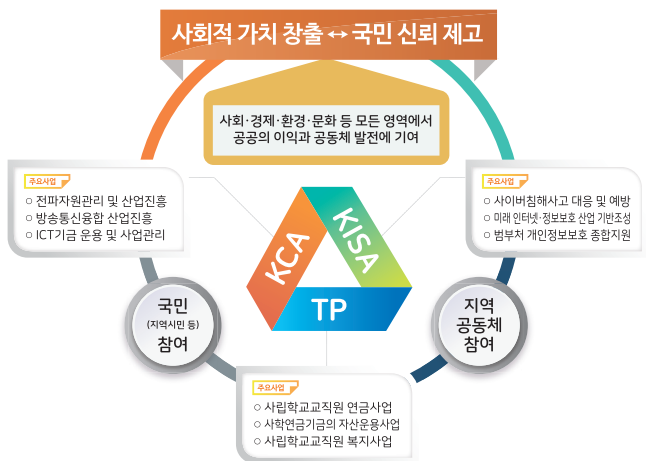


한국인터넷진흥원

TP, KCA, KISA 3개 기관과 국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루겠습니다!

우리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지역시민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
고자 3개 기관의 고유 역량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
써,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 경영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3개 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선도해 나갈 뿐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적 가치 회복, 호혜협력과 상생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목 차

- 01 ○ Main 1 금성관
- 07 ○ Main 2 나주향교
- 16 ○ Main 3 유채꽃 축제장
- 22 ○ Main 4 빛가람전망대
- 28 ○ Main 5 천연염색박물관
- 32 ○ Main 6 우습제
- 36 ○ Main 7 불회사
- 38 ○ Main 8 다보사
- 42 ○ Main 9 국립나주박물관
- 46 ○ Main 10 남평역





금성관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관길 8

금성관은 나주가 호남의 웅도로써 그 중심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역사유적입니다. 금성산에 올라 나주 시내를 내려다보면 시내 한복판에 큰 기와지붕과 600년 수령의 큰 은행나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그곳이 바로 금성관입니다. 금성관은 고려·조선시대 나주고을의 관사인 객사였으며, 현재는 그 규모나 명성, 나주고을 한복판이라는 입지조건, 그리고 주변에 나주곰탕이라는 먹거리 집이 있어 관광객들에게는 ‘나주 답사 1번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 이상현

금성관은 근대에는 또 나주인들의 향일정신을 대표하는 장소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천일 선생이 이곳에서 의병을 모아 출병식을 가졌고, 명성황후가 시해되었을 때 빈소가 마련되어 나주인들의 향일정신을 고조시킨 곳도 금성관입니다. 금성관은 일제강점기에 창호·마루 등 내부를 개조하여 나주군청 청사로 사용되면서 원형이 크게 변형되어, 1976~1977년까지 금성관을 완전해체한 뒤 거의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하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Main 1

금성관

관광코스

금성관

도보 2분

목사내아

도보 1분

정수루

메이커
공방142

도보 5분

나주곰탕
거리

도보 1분

시민 방문후기

조선시대에 나주를 방문한 중앙관리들을 위한 객사로 쓰인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고급호텔로 비유할 수 있어요. 국가가 운영하는 호텔 정말 궁금하네요!





목사내아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관길 13-8 061-332-6565



© 나주시청

나주 목사내아는 조선시대 나주 목사의 살림집으로 나주 읍성 안에 있던 여러 관아 건축물 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나주만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런 목사내아가 복원의 작업을 거쳐 2009년부터 전통문화체험공간 ‘금학헌’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나주목사 독송 유석증 방 : 청렴

하고 바른 정치로 나주 백성을 감동시킨 나주목사 독송 유석증을 기리기 위한 방입니다. 나주목사로는 유일하게 두번이나 부임한 유석증 목사는 나주 백성이 십사일반으로 쌀 2백석을 바쳐 재부임을 요구했을 만큼 선정을 베푼 목민관으로 유명합니다. 나주목사 유석증 방에서 머무신 분들은 맑은 기운을 얻어 유석증 목사의 삶처럼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주목사 학봉 김성일 방 : 경현서원 창건, 신문고 설치 등 훌륭한 치적을 많이 남긴 나주목사 학봉 김성일을 기념하기 위한 방입니다. 김성일 목사는 특히 송사를 현명하게 해결하여 아무리 어리석은 백성도 그의 판결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명한 나주목사 김성일 방에서 머무신 분들은 삶을 지혜롭게 사는 힘찬 기운을 얻어 성공가도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시민 방문후기

나주 목사내아는 나주 목사의 살림집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나주의 몇 안되는 관아 건축물이에요. 나주목사 독송 유석증 방이 유명한데 유석증은 나주에서 유일하게 2번이나 부임한 목사라고 해요. 그만큼 백성들에게 신망이 높았던거죠! 독송 유석증 방에 묵으면 유석증의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하





정수루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관길 13-20 061-339-8613

나주읍성 한복판에 있는 나주목 관아의 관문이었던 정수루입니다. 정수루에 오르면 주요 건물과 거리가 훤히 보입니다.

조선 중기, 정수루 서쪽으로는 나주관아의 외동헌인 '제금헌'과 내동헌(현 나주목사 내아, 금학헌)이 있었고, 주변으로는 목사를 보좌하던 육방 관속들이



© 이상현

집무를 보던 이청들이 즐비했습니다. 정수루에 올라 관원을 시켜 북을 울리게 하고 육방관속을 호령하던 나주목사의 기개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1층의 양측 벽만 벽체로 구성되어 있고 동서방향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2층 누각에는 대형 북이 놓여 있고, 정수루라고 쓰여진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사진자료를 보면, 정수루 2층 누각에 유리 미닫이문이 설치된 것이 보이는데, 일제가 일부 변형하여 업무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수루는 위치와 전망이 좋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나주사람들의 노래자랑이나 잔치 무대로 자주 이용되었습니다.



시민 방문후기

정수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향교답게 역사와 전통이 담겨있습니다. 오래된 비석과 문을 보면 그 당시의 모습을 회상할 수 있고 시간의 흐름을 간직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멋진 정수루! 금성관을 관람하며 정수루도 관람하세요.







메이커공방 142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로 142

이용시간 6월~10월(변동가능) 10:00~19:00 야시장 18:00~21:00

‘메이커공방142’는 나주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나주시에서 주최하고 나주문화원이 주관하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팝아트 그림그리기, 도자기 공예, 압화 공예, 통기타 교실 등 창작활동을 통한 아트상품 판매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시장에서는 전통 차, 과일주스, 소떡소떡 등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시민 방문후기

저녁만 되면 어둠이 내려앉는 나주 원도심.이를 밝히는 조명이 하나둘 켜지는 142거리! 거리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모인 사람들은 불빛보다 더 환하게 빛나요. 그 불빛 뒤로 환상적으로 펼쳐진 보랏빛 하늘은 마치 동화 속에 주인공이 된 기분이에요! 여러분도 방문해보세요^^

”



나주곰탕거리

금성관 인근

남도 육류문화에서 가장 널리 보급되어 정착된 것이 나주곰탕입니다. 아궁이에 솥단지 걸어놓고 소뼈를 고아 낸 물에 쇠고기 양지와 내장을 몽텅몽텅 썰어 넣은 뒤 다시 오래오래 고아서 낸 맑은 국물을 기름기 쫄쫄 흐



© 나주시청

르게 지은 쌀밥에 넣어 한 뚝배기 맛보는 나주곰탕은 전국민 영양식입니다.

소뼈를 우려내는 일반 곰탕과는 달리 소뼈를 적게 넣고 양지나 사태 등 좋은 고기를 삶아 육수를 내기 때문에 맛이 짜지 않고 개운합니다. 무, 파, 마늘을 많이 넣기 때문에 고기누린내도 없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풍부합니다. 토렴과정을 거친 뒤 계란지단과 대파를 올리고 푸짐하게 쌓인 머리고기와 양지는 담백하면서도 풍성한 맛을 더해줍니다.

제대로 된 김치와 시원한 깍두기를 얹어 먹는 맛은 어떤 산해진미도 부럽지 않을 맛입니다. 기호에 따라 깍두기 국물로 간을 해 먹는 것도 좋고 쫄깃한 수육에 소주 한잔 곁들여도 좋은 안주입니다.

현재 나주답사 1번지인 금성관 인근에 나주 대표음식인 곰탕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얀집, 노안곰탕, 남평할매곰탕 등 전통있는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Main 2

나주향교

관광코스

나주향교

도보 3분

서성문

차량 5분

남고문

북망문

차량 5분

동점문

도보 10분

나주학생독립
운동기념관

도보 10분





나주향교

전라남도 나주시 향교길 38 061-334-2369

나주시 과원동, 금계동에 있는 나주목 관아와 향교는 2007년 7월 31일 사적 제 48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나주는 천년목사골인만큼 나주목사가 머물던 관아가 자리 잡았고 그만큼 유림들의 위세도 막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나주는 농업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던 삼국시대 때부터 곡창지대로 풍요를 누리던 지역이었고, 고려왕조부터 조선왕조까지 약 1,000년 동안 목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전라도의 대표적 고을이었습니다. 현존하는 관아 건물과 향교 건물들도 그에 맞는 수준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어 중세사회를 연구하는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점이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나주 향교는 평지에 들어선 전묘후학의 배치형태를 띠고 있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향교의 건축모범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보물 제 394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성전은 그 규모가 대단히 웅장할 뿐 아니라 양식, 격식이 뛰어나 조선후기 향교건축을 대표할 수 있어 건축학적 가치가 큼니다. 또한 나주향교는 조선시대 교육시설의 규모를 따지면 성균관 다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클 뿐 아니라 교육과 제사의 고유기능을 간직하고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 이상현

“

시민 방문후기

향교에 들어서면 유생들의 기숙사인 동재가 위치하고 있고, 굴뚝이 위상을 보여 줍니다. 또한 대성전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 가을에는 온통 노란 풍경도 볼 수 있어요. 국내 최대 규모로 유서 깊은 장소라고 하네요!

”



© 김태훈



서성문

전라남도 나주시 서내동 118

서성문 안 석등의 기둥 둘에는 석등을 세운 내력과 함께 이 석등이 1093년에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붕 위에는 현재 작고 아담한 덧지붕만이 남아 있으며, 맨 꼭대기의 꽃봉오리 모양의 보주는 원래 부서진 것을 옛 모양대로 새로 만든 것입니다. 이 석등은 고려시대 문화의 전성기에 나타난 단아하고 격조 있는 팔각석등의 조형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민 방문후기

동학농민봉기 시기에 나주에서 관군과 동학군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나주 동학 전투의 중심지는 서성문이였으며, 동학군 3,000명이 넘지 못한 비운의 성문이기도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나주의 4대문은 파괴되었지만 다시 복원된 서성문을 보며 그 당시의 치열함과 긴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나주시청



남고문

전라남도 나주시 남내동 2-20 061-330-7823

나주 읍성의 동문인 동점문을 지나 나주초등학교 방향으로 중앙로를 달리다보면 도로 한복판에 큰 성문이 있는데, 이것이 남내동에 자리잡은 나주 읍성의 남문, 즉 남고문입니다.

남고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 남문을 나서면서 임금님이 계신 곳인 금성관쪽을 돌아보았다고 하여 남고문이라 했다고 합니다. 삼봉 정도전이 나주로 귀향 오면서 여기에 올라 ‘유부로서’를 읊었다고도 합니다.



시민 방문후기

남고문은 남문을 나서면서 임금님이 계신 금성관쪽을 바라보았다 하여 이름이 붙은 남고문입니다. 나주 4대문 답게 고풍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전라남도 나주시 죽림길 26

061-334-5393

이용시간 09:00~18:00 무료

일제강점기 학생운동의 산실인 나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옛 나주역사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0월 30일 당시 나주역



© 나주시청

에서 나주·광주 간 기차를 이용해 통학하던 한·일 학생의 충돌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독립운동은 흔히 일제강점기 3대 독립운동의 하나로 평가됩니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학생독립운동 진원지 ‘옛 나주역’ 옆에 당시 역사를 생생하게 일깨울 수 있도록, 전남지역의 식민지 상황과 학생독립운동의 전개과정 등을 주제로 2008년 7월 25일 개관하였습니다. 기념관은 평일과 주말 09:00~18:00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 휴관입니다. 나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를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었습니다.



시민 방문후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의 근원지였던 나주! 학생운동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한번 들려야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잊지 말아요.





(구)나주역

전라남도 나주시 죽림길 26 061-330-7823



© 나주시청

(구) 나주역사는 나주인의 항일정신을 보여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입니다. 1929년 10월 30일 오후 5시 30분경, 일본인 남학생들이 조선 여학생들을 희롱하자, 조선 남학생들이 이를 저지하며 순식간에 한·일 학생간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촉발시킨 나주역 사건의 정황입니다. 이를 계기로 일제 4대 명절의 하나인 명치절인 11월 3일,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명치절 기념식 후에 있을 신사참배를 집단 거부하고 일제히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항쟁 소식은 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 전국의 194개교 54,000여명이 시위운동에 참가한 역사적 사건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렇듯 나주역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라는 역사적 의미가 평가돼 전라남도 제183호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구 나주역사내에는 나주역 영업당시의 개찰모습, 일제강점기에 썼을 법한 역무원들의 근무모습이 밀랍인형들로 재현되어 있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사 바로 옆에는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 개관해 당시의 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영상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시민 방문후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시발점 그곳은 바로 나주역입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나주역은 밀랍인형으로 당시의 상황을 재현했기에 좋은 역사공부가 될 것이라 생각해요. 기념관을 방문하며 같이 구경해보세요.





동점문

전라남도 나주시 동점문길

061-330-7823

동점문은 나주의 관문이자 나주읍성의 동문입니다.

나주읍성 안쪽으로 나주천이 흐르는데, 나주천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 영산강과 만나는 하류 부근에 나주읍성의 동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점문 2층 문루에 올라서면 나주 영산강과 나주대교까지 눈에 훤히 보입니다. 동점문이라는 현판 이름에 얽힌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동점문은 중국의 경서인 서경에 나오는 동점우해에서 따온 것인데, 나주천이 동쪽으로 흘러 영산강을 만나 바다에 이르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고려 말 삼봉 정도전이 원나라를 멀리하고 명나라와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해 나주로 귀양살이를 오게 되는데, 이때 나주읍성 동문에 올라 ‘나주 주민들에게 드리는 글’(등나주동루유부로서)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런 역사를 거론하며 2006년 동점문 복원 당시 현판 글씨를 적었습니다.



시민 방문후기

동점문 2층 문루에 올라서면 영산강과 나주대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 가슴 한켠이 뽕 뚫리는듯한 기분이에요. 유명해지기전에 빨리 오세요!



© 나주시청

북망문

나주를 상징하는 나주읍성 복원의 마지막 관문인 북망문이 25년 만에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시민친화공간으로 2018년 12월 복원된 북망문은 ‘오랜 역사의 산 증인’으로 귀중한 유산입니다.

북망문은 임금이 계신 쪽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복원된 성문 주위가 나주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민친화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 또한 분명한 지향점입니다. 전라도 정명천년의 해이기도 한 2018년에 복원을 완료한 북망문을 방문하여 나주의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시민 방문후기

‘25년 대장정’ 나주읍성의 마지막 문인 북망문이 복원되어 2018년 12월 24일에 낙성식을 개최하였습니다! 4대문 중 마지막으로 복원된 북망문을 보며 옛 전라도의 중심 나주의 웅장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





Main 3

유채꽃 축제장

관광코스

도보7분

유채꽃 축제장
(영산강둔치체육공원)나주철도공원
(구 영산포역)

영산강 황포돛배

도보13분



유채꽃 축제장(영산강둔치체육공원)

영산강 둔치공원(영산교 아래)일원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영산강 둔치의 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입니다. 넓은 부지에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야구장 등 구기종목을 위한 체육시설과 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트랙, 자전거무료대여소와 놀이시설이 있어 체육활동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전용 주차장 시설이 있어 접근성 또한 뛰어납니다.

봄이 오면 나주에서는 유채꽃을 활용한 유채꽃 대향연 행사를 진행합니다. 관광객들에게 나주를 대외적으로 널리 소개 홍보하고, 상인들의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행사로 매년 4월 영산강둔치 체육공원 내에서 진행됩니다.

유채꽃축제는 넓은 영산강변에 셋노랑게 피어오르는 꽃망울이 어우러지는 자연 속에서 거주민들에게는 화합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출향 향우들에게는 고향의 추억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고 관광객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기회를 선사하오니 축제기간에 꼭 참여해보세요!



© 차영순

“

시민 방문후기

나주시와 영산포를 잇는 다리인 영산교 아래에서는 노란색으로 펼쳐진 유채꽃 축제장을 볼 수 있어요! 노란 유채꽃으로 가득 찬 축제장에서는 가족들의 행복함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유채꽃밭으로 소풍갑시다!

영산강이 품은 너른 풍경, 탁 트인 곳을 바라보면 무겁고 적적했던 마음도 없어지네요. 도시 안에서도 머리를 식힐 곳이 있다는 이런 소소한 행복 여러분도 함께 느껴요!

”



나주철도공원(구 영산포역)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로 263-23 (삼영동 174-1)

영산포역은 전라남도 나주시 영강동에 위치한 호남선의 역이었습니다. 호남선 복선 전철화에 따른 선로 이설로 인해 나주역과 통합되어 폐지되었고, 현재 역 부지에 나주 철도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 7월에 폐역이 되기 이전에는 나주역을 대신하여 나주시를 대표하는 역이었으며, 새마을호를 포함한 모든 열차가 영산포역에 정차하였습니다.

폐역된 영산포역에 2003년에 나주철도공원이 들어섰습니다. 은하철도999하면 생각나는 미카형 증기기관차가 전시되어 있어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철도 위에서 분위기 있는 사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시민 방문후기

영산포역은 새마을호 열차까지 정차하는 지금의 나주역, 광주송정역보다 이용객이 많은 역이었어요. 하지만 나주역사로 통합된 후 화려함과 분주함은 사라졌고 점차 방문객도 줄어들었어요, 이러한 상황을 변화하기 위해 공원으로 변모하였고 지금의 아름다운 철도공원이 생겼습니다.







영산강 황포돛배

전라남도 나주시 등대길 80(영산동 279-12)

061-339-8714(선착장) / 061-339-8595(사무실)

이용시간 10:00~17:00 (매주 월요일 휴무, 공휴일 제외)

다야선착장 임시운항기간 2018.11.1.~2019.3.31.

황포돛배는 바닷물이 영산강 물길을 따라 오르내리던 시절 과거 영산강 물길을 이용해 쌀, 소금, 미역, 홍어 등 온갖 생필품을 실어 나르던 황토로 물들인 돛을 단 배를 말합니다. 영산강 황포돛배는 육로교통이 발달하면서 1976년 상류에 댐이 들어서고 영산강 하구둑이 만들어지자 1977년 마지막 배가 떠난 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 2008년 30여년만에 웅장하고 위엄있는 옛 모습 그대로 부활한 황포돛배는 그 옛날의 추억을 싣고 영산강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영산강 비단물결을 따라 유람하는 황포돛배투어는 나주 여행의 백미입니다. 영산포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돛배를 타면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의 해설사가 맛깔스러운 이야기를 풀어놓고 미끄러지듯 배는 강을 거슬러 오르며 과거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황포돛배 투어는 나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이색체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 죽산보 추가개방에 따른 영산강 수위 저하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다야 선착장으로 임시 이전

시민 방문후기

예전부터 황포돛배는 사랑과 이별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수백번을 오갔을 물길 위에서 황포돛배는 술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사랑의 장소였다고 하네요. 또한, 영산포 선창 매표소에 가면 직접 승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유유자적 영산강을 건너보는건 어떨까요?



Main 4

빛가람전망대



관광코스



빛가람
전망대

차량11분



산림자원
연구소

차량5분



도래
한옥마을





빛가람전망대

전라남도 나주시 호수로 77 061-333-1501~3

이용시간 하절기 09시~22시 / 동절기 09시~21시

빛가람 혁신도시 중앙호수공원에 위치해 있는 빛가람 전망대는 빛가람 동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랜드마크인 빛가람 전망대에서는 발전하는 나주시의 경관과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 9일 개관한 빛가람전망대는 전시동과 전망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시동은 혁신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혁신도시전시관과 기획전시실, 북카페 등이 있고 전망대는 총 5층으로 4층 레스토랑과 5층 전망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노레일과 돌미끄럼틀을 단돈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체험해보세요!



시민 방문후기

나주혁신도시에서 연인, 가족들과 함께 가볼만한 곳이에요. 산책할 겸 걸어도
라가도 좋고, 모노레일과 돌미끄럼틀도 탈 수 있어요. 특히 밤에는 나주혁신도
시 야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서 더욱 멋있구요^^



© 조정규



산림자원연구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다도로 7

061-336-6300

동절기 11월~2월 09시~5시 (입장마감 4시)

하절기 3월~10월 09시~6시 (입장마감 5시)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도립 연구소로, 산림생태계나 임업에 관련된 연구를 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KBS<1박2일>팀의 촬영, <구미호외전>, <프레지던트> 등 드라마 촬영과 서인국의 '부른다' 뮤직비디오, 우리은행 CF 등 TV에도 자주 등장하며 전라남도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수목 피해를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1998년에는 전남나무병원을 개설했습니다.

나무로 이뤄진 산책로, 놀이시설, 전망대 등 일반인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며 휴양지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산포수목원에 들어서면 메타세콰이어 길을 중심으로 양쪽에 건강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어 장관을 이룹니다. 또한 산림자원 연구소에는 메타세콰이어 뿐 아니라 잔디광장, 토피어리(Topary), 잣나무숲, 온실, 유용식물원, 약초원, 미로원, 상록수원, 희귀식물원, 표본수원, 삼나무원, 기념식수원, 방향식물원 등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산책로로서 최고의 조건입니다.



시민 방문후기

메타세콰이어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담양을 떠올리곤 하는데, 저는 나주 산림자원연구소 메타세콰이어길이 더 조용하고 운치있더라구요. 인생사진도 건질 수 있어요!







도래마을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동력길 16

061-336-3675

도래 마을은 풍산 홍씨의 대를 이어가며 살고 있는 한옥 마을입니다. 나주시 전역을 둘러보아도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가옥의 분위기를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의 맥이 세 갈래로 갈라져 '내 천'자 형국을 이루는 까닭에 '도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곳은 한옥과 기와, 돌담과 더불어 초가집들이 멋스럽게 어우러져있습니다. 작은 못을 앞에 두고 기품 있게 앉아 있는 양벽정과 영호정은 경관이 좋고 정자 입구의 2층 효자문은 독특한 경관을 이루는데요. 정자도 많아서 마을 어귀의 양벽정을 비롯해 영호정, 계은정, 서벽당, 귀래당, 홍기헌 가옥(중요민속자료 제 165호) 외에 홍기응 가옥(중요민속자료 151), 홍기창 가옥(전라남도민속자료 9), 홍기종 가옥



(전라남도민속자료 10) 등 문화재의 가치가 있고 고색창연한 건축물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마을은 조선의 모든 군사가 사흘을 먹을 정도로 물산이 넘쳐나는 식산이 둘러싸고 있고, 마을 앞에는 들판이 펼쳐지며 도래천이 흘러 전형적인 배산임수형의 마을입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

시민 방문후기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기 부담스럽다면 고풍스럽고 낭만이 있는 나주 도래 한옥마을로 오세요! 전주한옥마을만큼 멋집니다.

”





Main 5

천연염색박물관

관광코스

천연염색
박물관

차량15분

죽산보

차량16분

영상
테마파크



천연염색박물관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379 061-335-0091

이용시간 3월~10월 09:00~18:00 / 11월~2월 09:00~17:00



© 나주시청

나주시 천연염색관은 폐교 부지를 활용해 새롭게 태어난 특별한 문화공간입니다.

나주는 지리적으로 염색의 원료인 쪽과 뽕나무를 재배하기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는 쪽 염색장인들을 통해 천연염색을 보급하는 일을 열

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워진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은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보급, 산업화, 연구개발 및 천연염색문화관 운영을 주목적으로 2006년 4월에 민법규정에 의해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한국과 나주의 천연염색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주는 무형문화재(천연염색장) 2명을 배출하여 오랜 염색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데요. 천연염색 문화관에서는 30여개의 우수업체에서 생산한 다양한 천연염색 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나주천연염색 문화관 운영국에서는 나주 천연염색의 대표적인 쪽, 황토, 치자 등 각종 천연염색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나주시청



죽산보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영산강에 설치되는 두 개의 보 가운데 하나인 죽산보. 2009년 12월 184km의 친환경 가동보가 만들어졌고 4.5km의 옛 강이 복원되었습니다. 주변에 수변생태공원, 소수력발전소, 자전거 길이 조성되어 있고 전국 16개 보중 유일하게 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는 수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사계절 꽃들의 잔치를 볼 수 있습니다. 나주영상테마파크와 이어지는 야생화 초지 군락지와 강변의 습지, 생태공원 등이 있습니다.



시민 방문후기

호남의 상징이자 풍요로움의 상징인 나주시를 굽어쳐 흐르는 영산강을 잘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죽산보라 생각해요. 많이들 죽산보에 방문해서 아름다운 광경들을 눈에 담았으면 해요!





영상테마파크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덕음로 450 061-335-7008

이용시간 09:30~1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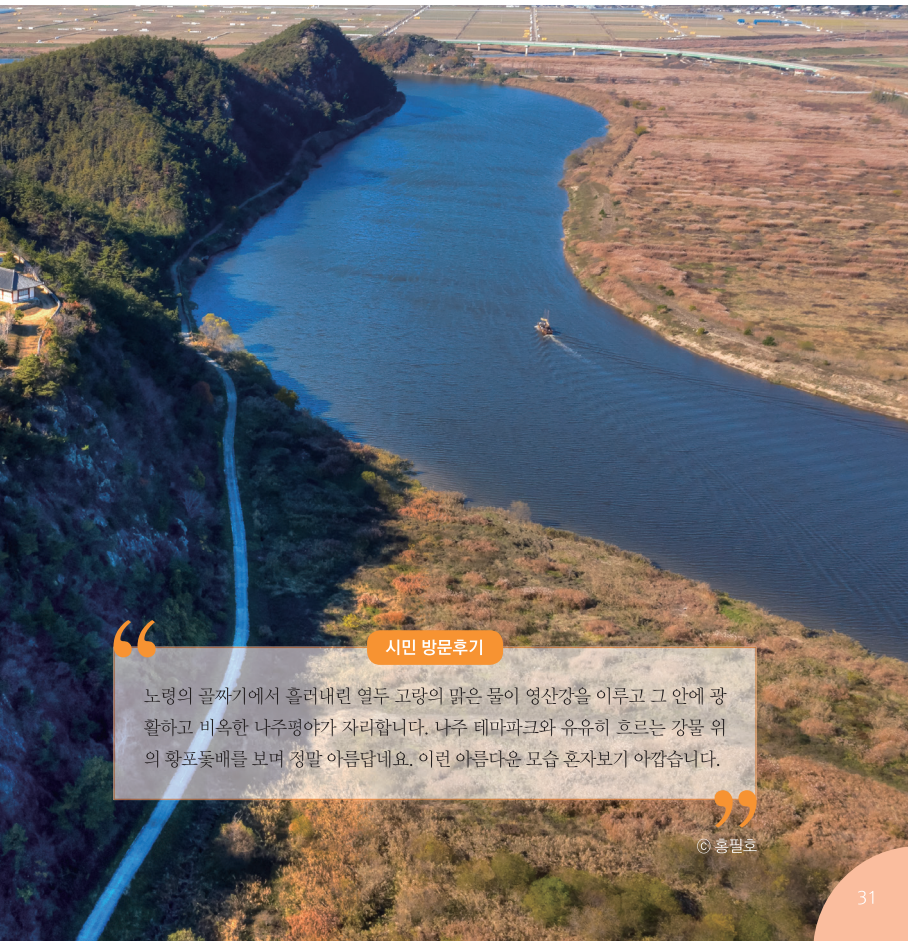
나주 영상테마파크는 단순한 드라마 영화 촬영장이 아닌 고구려의 건국 역사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영상전문 테마공원입니다.

이 곳은 애초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촬영을 위한 오픈세트이자 삼국시대 민속촌으로도 기획되었는데요, <주몽>과 <태왕사신기>의 촬영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드라마 및 영화의 주연배우들의 핸드 프린팅과 출연사진이 붙어 있는 스타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활쏘기, 승마, 민속 놀이, 전통 공예 등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 실내세트장과 밀레, 고흐, 뭉크, 마티스, 클림트, 신윤복, 김홍도 등 국내외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실사해 내건 명화 미술관도 들어서있습니다. 고구려궁 맞은편에 있는 성루에 올라서면 영산강과 넓게 펼쳐진 나주평야, 그리고 세트장 전경을 마주할 수 있어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

시민 방문후기

노령의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열두 고랑의 맑은 물이 영산강을 이루고 그 안에 광활하고 비옥한 나주평야가 자리합니다. 나주 테마파크와 유유히 흐르는 강물 위의 황포돛배를 보며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 혼자보기 아깝습니다.

”

© 홍필호



Main 6

우습제

관광코스

우습제

차량7분

느려지 전망대





우습제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이용시간 연중무휴

우습제는 약 300년 전에 조성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현재의 모습으로 재 축조된 것은 1943년입니다. 주민들에게는 ‘소소리 방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제방에 소들을 댔던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우습제는 약 43만㎡에 이르는 면적에 홍련이 자생하는 연못으로 옛 지도에는 우습교제(牛十橋堤)라고 적혀 있으며, 둘레 7,000척(약 2.1km)·깊이 7척(약 2.1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

시민 방문후기

13만평의 국내 최대 홍련자생지인 우습제는 300여년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특히 7월말부터 8월까지의 빨간 연꽃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꼭 방문해야할 이유입니다!!!

”



© 조정규



느러지 전망대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이용시간 연중무휴

느러지 전망대는 영산강 하류 지점의 ‘한반도 지형’을 닮은 물돌이를 보
다 또렷하게 전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국내 대표적 한반도 지형으로 알려
진 강원도 영월 동강과 비교해도 강폭이 500~600m 이상으로 넓어 웅장한
맛이 일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시민 방문후기

동강 비룡산 정상의 느러지 전망대에서 바라본 영산강 하류지점의 한반도 지형
은 감히 장관이라 말하고 싶네요. 우리 지역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요. 사실 이곳은 나주의 8경 가운데 제2경에 해당된다고 해요. 꼭 방문할거죠?





© 홍필호



© 선보희



Main 7

불회사

관광코스

불회사

차량25분

나주호



불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224-142 061-337-3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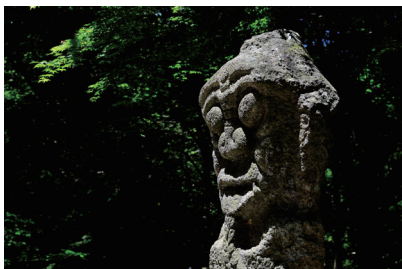
이용시간 연중무휴

불회사는 아름다운 대웅전과 문화재와 보물, 일봉암이 있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절 주위의 전나무, 삼나무, 비자나무 등의 숲은 아늑한 분위기를 이루며 단풍이 가장 늦게 드는 지역으로 그 빛깔이 인근에서 가장 아름답고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곳으로 인근의 나주호와 더불어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 방문후기

불법이 최초로 한국의 민중과 만났다는 불회사!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져 고유의 멋을 지니고 있는 불회사! 한번은 일상 생활의 휴식을 절에서 보내는 것은 어떠실까요?



© 김태운



나주호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이용시간 연중무휴

나주호는 저수량 9,120만톤의 농업용수 공급원이며 자연경관이 뛰어난 관광코스로서 녹음이 우거진 신록의 계절과 단풍이 물드는 가을의 정취는 그 어느 지역보다 순수한 자연미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붕어, 잉어, 향어 등이 서식하고 있어 강태공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민 방문후기

나주호의 본래 목적은 농업용수였어요. 하지만 봄과 가을 호수주변에 아름다운 물안개가 자주 피어나 사람들의 발길과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또한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핫한 낚시터로도 유명합니다!





Main 8

다보사

관광코스

다보사

차량5분

한수제



다보사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산길 83 061-334-4201

이용시간 연중무휴

다보사는 백양사 말사로 금성산 남쪽 기슭 골짜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초옥을 짓고 수행 중 땅에서 칠보로 장식된 큰 탑 속에서 다보



여래가 출현하는 꿈을 꾸뒤에 창건하였기에 다보사(多寶寺)라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1184년(명종14)에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중건, 1594년(선조 29) 청허선사가 중창하였습니다.

“

시민 방문후기

나주 금성산 자락의 다보사의 가을! 추경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았습니다. 가을 낙엽으로 온 마당을 융단으로 깔고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군요. 단풍 위에서 소원을 비는 부부의 모습을 보며 저의 소망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





한수제

전라남도 나주시 경현동

이용시간 연중무휴

한수제는 금성산 계곡에서 흘러나온 물을 가둬 만든 저수지로 주변에 심어진 수백 그루의 벚꽃과 함께 봄이면 기가 막힌 장관을 연출합니다. 매년 4월에는 아름다운 벚꽃축제가 열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 시민 방문후기 ”

한수제는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을 구경하며 걷기 좋은 장소예요. 사계절 내
내 다른 매력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구요. 곧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 장담해요!

”
© 윤은영



Main 9

국립나주박물관





관광코스

국립나주박물관

도보5분

반남고분군



©강릉



국립나주박물관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고분로 747 061-330-7885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 토, 일, 공휴일 09:00~19:00

※휴무일: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국립나주박물관은 영산강 유역에 남아있는 고고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하며 전원 속에 자리잡아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역사공원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박물관 최초로 스마트폰의 NFC기술을 이용한 전시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람객이 스마트폰으로 전시내용을 안내받고 SNS상에서 서로 주고받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박물관 옥상정원도 개방하여 박물관의 여러 공간을 보다 생생하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시민 방문후기

고분들 사이 낮고 넓게 지어진 국립나주박물관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외관을 지니고 있고 나주의 고대 역사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곳이에요! 아이들에게는 배움터로, 가족들에게는 놀이터로 손색이 없어요! 또한, 국내 박물관 중 최초로 첨단 안내시스템을 갖춘 곳이기에 꼭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 나주시청



반남고분군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고분로 756 061-336-1151

이용시간 연중무휴

나주 반남면 부근 탁 트인 들판 한가운데에 왕릉처럼 솟아 있는 큰 무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분은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높았던 지배층의 무덤이며, 돌이나 흙으로 형태로 쌓고 그 안에 돌방, 독, 널무덤 등을 설치했습니다. 매년 10월 말에는 반남고분 국화축제가 열려 다른 축제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시민 방문후기

경주에만 반남고분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한문화의 중심 나주에도 고분이 있답니다. 누구의 무덤인지는 모르지만 규모를 보면 대단한 왕이 아니었을까요? 경주도 좋지만 가까운 나주에서도 고분을 만나보세요!



© 나주시청



Main 10

남평역

관광코스

남평역

도보 5분

남평 은행나무길



남평역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고분로 756 061-336-1151

이용시간 연중무휴

철도 이용객이 줄어 무정차통과역이 되었지만 그 때문에 남평역은 사시사철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봄이면 공원처럼 꾸며진 역 주변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으로, 가을날이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코스모스의 향연으로 유명합니다. 역사 주변에 레일바이크가 설치돼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민 방문후기

남평역 주변 250m에 해당하는 레일바이크는 남평역을 찾는 큰 이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봄벼있는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을 보며 가족들이 생각나네요. 여러분들은 혼자 오지 말고 친구 또는 가족이랑 오세요ㅠㅠ



© 나주시청



남평 은행나무길

전라남도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역 부근

이용시간 평일 연중무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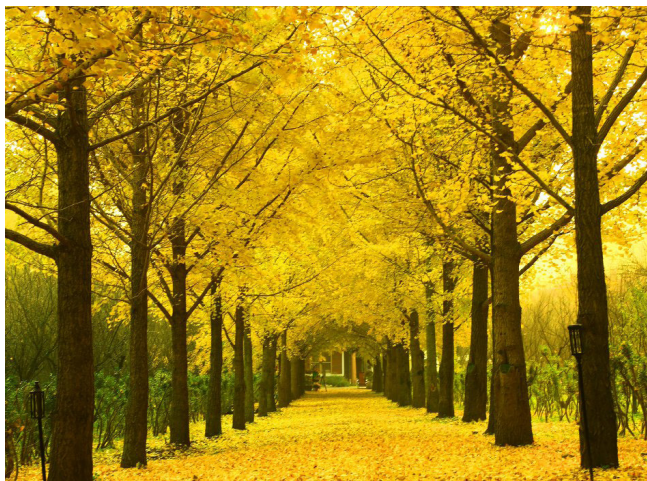
나주시 남평역 부근에 있는 은행나무 길은 개인이 운영하는 농장으로 해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농장주가 무료로 개방하는 곳입니다.

입구부터 수많은 은행나무로 둘러싸인 이 길은 많은 관광객들의 입소문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연인,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즐겨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민 방문후기

농장주의 무료 개방으로 인해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곳. 그 이름은 바로 핫한! 남평 은행나무길입니다. 유유자적 고유의 멋이 있는 은행나무길에서 데이트 어떠세요?



© 나주시청

나의 소중한 추억찾기

대호제 찾기

다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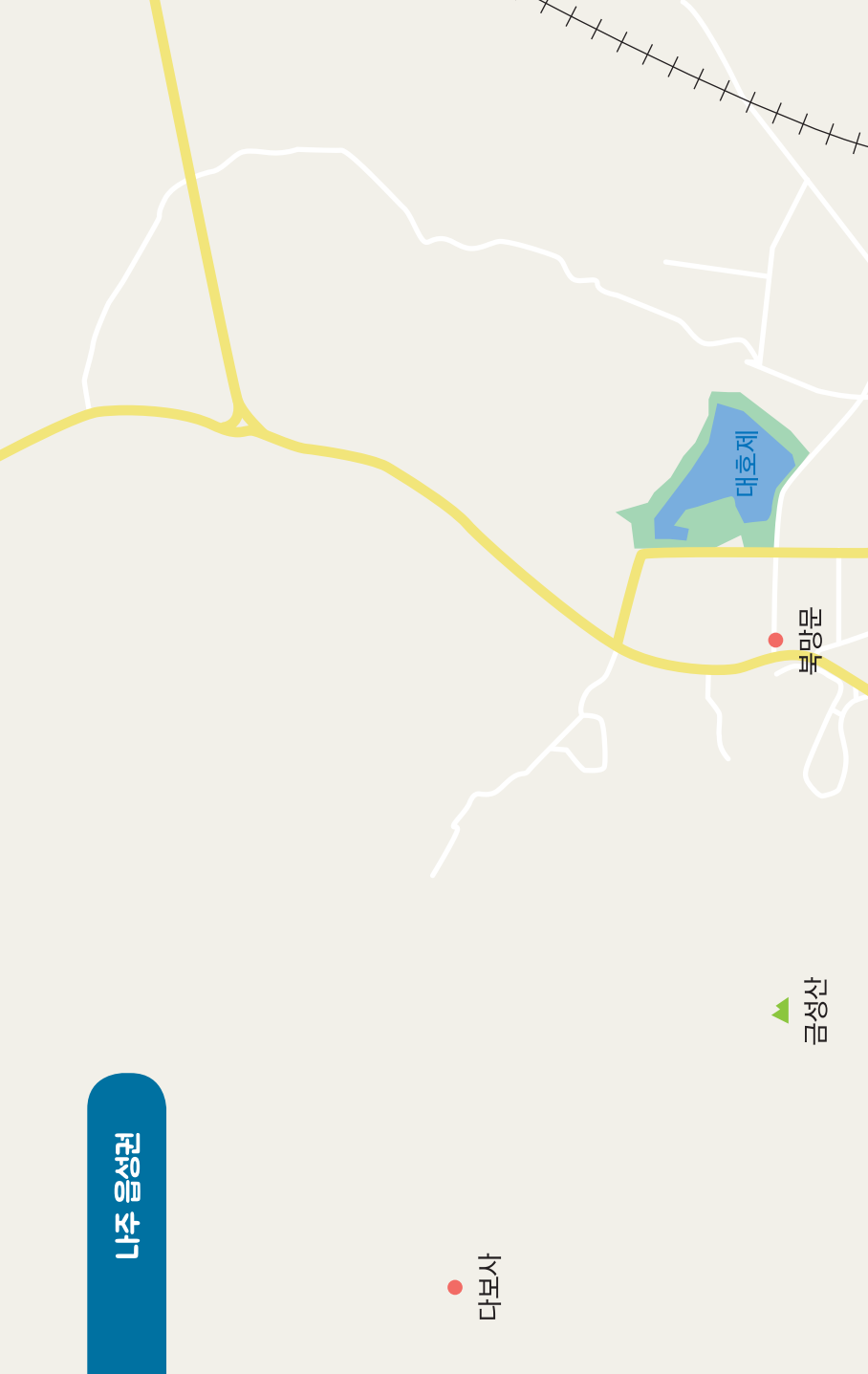
금성산



대호제



대호제





문화관광

나주시청

나주역

충경서원

나주 철도공원

국립나주

영산강



문화재연구원

유채꽃 축제장
(영산강둔치체육공원)

영산강
체육공원

영산포등대

영산나락

만봉천

영산공영
버스터미널

혁신도시권

